

# 中 패널 생산 직격탄... 전세계 디스플레이시장 '요동'

## 코로나19 후폭풍

中공장 완전 정상화 아직 '역부족'  
LCD패널 10% 이상 상승 전망  
가동률 뚝 떨어지고 물류도 차질  
도쿄올림픽 특수 기대감에 찬물

코로나19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산업계를 뒤흔들 조짐이다. 당장 디스플레이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생산 공장은 지난 10일 춘제 연휴를 끝낸 후에도 종전보다 10% 이상 가동률 저하를 겪고 있다.

노동력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감염자와 감염 의심에 따른 자가격리자가 10%에 가까운 상황에서, 현지 방역 조치 강화로 전력 가동이 어려운 탓이다.

격리 기간은 최소 2주다. 때문에 가동률을 끌어올리려면 최소 24일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얘기가. 현지 감염자가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8.5세대 OLED 공장 전경.

/LG디스플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더 길어질 가능성도 높다. 완전 정상화까지는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 2월 한달간은 정상 조업이 불가능한 셈이다.

물류 문제도 있다. 우한 등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이 심화했다. 국내 산업계가 공장 중 적지 않

은 수를 중국이 아닌 베트남 등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지만, 배송 지연 가능성을 미리 공정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수요 하락도 걱정거리다. 코로나19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판매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월 초

판매량뿐 아니라 구매 문의도 크게 줄었다. 코로나19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2월 실적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TV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이 LCD 패널 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현지 최대 업체인 BOE의 경우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우한에 팜을 5개나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LCD 패널 가격이 10% 이상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상인 삼성전자도 지방 정부 방침에 따라 텐진 TV 공장 가동을 19일로 미룬 상태다. LCD TV 공급난과 함께 가격 상승이 유력한 이유다.

올레드 TV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는 현지 공장 가동률 저하를 말하면서도 올레드 라인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초 계획을

지키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올레드 TV 가격 인하 효과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단, LG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호재다. 여전히 LCD 패널 매출 비중이 70%를 넘기 때문이다. LCD 패널 가격 하락으로 올레드 비중을 높이고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도 이어졌다.

올레드 TV를 판매하는 LG전자도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올레드 TV 가격을 당장 내리지 못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LCD TV 가격 상승에 자연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모든 산업계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관계자는 "MWC 등 국제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올 여름 도쿄 올림픽 개최에도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다"며 "모처럼의 특수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부실 조사, 배터리산업 ‘위축’ 초래”

### >> 1면 'ESS 화재 진실공방'서 계속

이에 LG화학과 삼성SDI는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가 아니다”며 반발했다.

특히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되는 한 배경으로는 화재가 국내에서만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부재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LG화학은 국내에서 문제가 된 ‘납경산 배터리’가 해외에서 화재가 난 경우가 없고, 삼성SDI는 해외 화재 사례가 전무하다. 해외 화재 사례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같은 배터리임에도 국가별로 다른 환경과 운용 방식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2차 조사단을 주도했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LG화학과 삼성SDI 모두 해외 화재 사례가 없지 않냐는 질문에 “아니다. 두 기업 모두 있다”고 밝혔다. 이어 ESS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관계자는 “기업의 자료가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반면 LG화학과 삼성SDI는 전기안전공사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LG화학은 해외 화재 사례가 있지만 납경산이 아니라고 밝혔고, 삼성SDI는 해외 화재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파악하고 있는 LG화학의 사례가 납경산인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고, 삼성SDI의 경우 분명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LG화학과 삼성SDI 등 제조사조차 파악하지 못한 해외 사례를 전기안전공사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전기 안전공사가 해외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이번 ESS화재 조사와 연관성이 있는 사례인지의 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ESS 화재' 2차 조사단은 해외 사례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배터리 화재'를 제조사의 원인으로 결론 지었다.

이번 2차 조사단에서 공동단장을 맡은 김재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LG화학의 해외 사례가 납경산인지는 확인 못했다”며 “삼성SDI의 해외 화재 사례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SDI의 해외 화재 사례가 진짜 있는지 여부는 모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다방면에서 검토되고 정확한 결론을 내렸어야 할 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만한 대목이다. 끊이지 않는 화재와 함께 명확한 원인도 밝히지 못하며 국내 ESS시장은 현재 위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위해 시장의 성장에만 집중해, 설치 규정이나 관리 등 문제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6월 결론났던 민관합동 ESS 1차 조사단은 결과 발표와 함께 뒤늦게 여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박철완 서경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이상이나 유발된 진행성 불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다만 '유발된 진행성 불량'은 최초의 배터리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더 정밀한 표현”이라며 “최초의 셀을 생산해서 모듈을 만들 때, 모듈에 들어간 셀 자체는 제조 공정상 불량이 없었다는 얘기가. 사고 조사위도 배터리 이상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못 밝혔다”고 말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ESS충전율을 이번 가이드스에서 제한했다. 충전율을 못 쓰는 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배터리를 완벽하게 못 쓰는 부분이 생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의 문제로 결정하기엔 지금 어떤 것도 실험적으로 검증된 부분들이 없고 아마 검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한화시스템, 미래교통수단 '에어택시' 만든다

### 美 오버에어와 공동개발 착수 개인항공기 사업영역 확대

한화시스템이 미국 개인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업체 오버에어사와 손잡고 미래도시 교통수단에 에어택시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4일(한국시간) 미국 LA소재의 PAV 선도기업 오버에어사 개소식에 참석해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공동개발에 본격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왼쪽 세번째부터), 오버에어 벤 티그너 CEO, 에이브 카렘 Chief Designer 등 30여 명이 참석해 오버에어사 출범을 축하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오버에어의 PAV인 '버터플라이'의 공동개발에 본격 합류한다. 그동안 한화시스템은 항공분야에서 항공전자 및 ICT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성능, 가격, 디자인, 고도화된 자동비행, 안전성을 두루 갖춘 PAV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미래 신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에어택시 시장 진출을 발



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왼쪽 세번째부터), 오버에어 벤 티그너 CEO, 오버에어 에이브 카렘 Chief Designer 등 관계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된 오버에어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표한 바 있다. 이후 PAV 전문기술 보유 기업 오버에어에 약 300억원을 투자해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1월에는 미국산업보안국의 특수유출허가 승인을 받았다.

오버에어는 세계적인 승차 공유서비스 기업 우버가 추진 중인 '우버 엘리베이트'의 핵심 파트너사 중 하나인 '카렘 에어크래프트'에서 분사된 기업이다. 카렘 에어크래프트는 수직이착륙기(VTOL) 전문업체로 '고효율', '저소음'의 에어택시를 구현할 수 있는 다수의 특허 및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PAV 전담팀을 통해

오버에어와 협력체널을 구축하고, PAV 기체 공동개발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 협력관계 확대 등 전방위적인 사업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며 관련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PAV 시장 진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한화시스템이 PAV 시장 선점을 위한 공동개발에 한발 앞서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미래 항공전자 분야로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 LG LED마스크, 태국 국립병원서 효능·안전성 인정

LG프라엘이 의료 효과를 검증받았다.

16일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태국 국립 '시리랏병원' 피부과 연구진과 함께 '가정용 LED 마스크 임상 효능 검증'을 완료했다. 시리랏병원은 태국을 대표하는 국립병원으로, 현지 선대 국왕이 사망 전 입원 치료를 받을만큼 위상이 높은 곳이다.

이번 시험은 30세부터 55세까지 참가



자 2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얼굴 반쪽에만 더마 LED 마스크(사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진들은 2주마다 제품을 사용한 쪽과 사용하지 않은 쪽을 관찰해 비교했다.

그 결과 프라엘을 사용한 부분은 사

용하지 않은 부분보다 피부 수분량이 최대 7.5%, 피부 탄력도 30% 높았다. 사용할 때나 이후에 피부가 붉게 변하는 등 부작용도 없었다.

LG전자는 이번 실험이 효능 검증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의료기관 임상 결과를 확보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LG전자는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에 프라엘을 연이어 출시한 바 있다. /김재용 기자